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긴급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긴급 현안질의 1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 현안질의

(10시04분)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3일 밤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안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국방위원회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의문들을 풀어 드리고자 서둘러 현안질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1분 1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목적도 우리 국방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향한 질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질의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되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현안인 만큼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위한 질의보다는 왜 군이 출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명령을 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무기는 어떻게 휴대했는지 등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7분에서 5분 정도로 먼저 하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11시부터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아마 1시간 이내에 돌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님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질의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부터 바쁘시기 때문에 먼저 배려를 해 드리고 여야 위원님들 순서를 교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승찬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예,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갑자기 이번 전체회의가 잡힌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계엄사령관 한 분만 참석하시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 당한 합참의장 그리고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실제 국회로 난입한—진입이라고 하기에도 뭐한—707 그다음에 1공수 이런 단장들 비롯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용현 전—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에도 보면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더니 ‘런종섬 투(two)’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로 어떤 현안질의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허영 위원님 자료제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상당히 저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책임을 추궁할 만한 또 비상계엄이 어떠한 사전 준비와 또 사후 전개를 거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충분한 증인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야 협의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참으로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제2의, 제3의 긴급현안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국방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에도 계엄 대비계획 문건이 작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참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계엄사령관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계엄 대비계획, 수행계획 등 계엄 실행 관련된 작성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건이 있다면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그것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지원본부 계엄과인지 아니면 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인지 아니면 계엄사령관 자체인지, 대통령실인지 명확한 계엄 대비계획의 작성 출처와 작성 문건들을 긴급 현안질문 진행 과정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지금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하고 계신데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안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방송이나 이렇게 취재진이 와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1분씩만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님 또 조국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방부에서도 왔고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도 나와 있는데요. 계엄사령관, 6시간. 포고령 1호를 발포한 당사자예요. 포고령을 발포할 당시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조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포고령을 검토했는지, 검토했으면 어떠한 내용을 검토했는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겠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그것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겠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잘 판단해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포고령……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 그것은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박범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해 준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포고령, 어떤 무엇을 참조해서 그저께의 포고령이 나왔는지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자료제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자료제출인데요.

첫째, 국무회의는 반드시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고 회의록은 배석자에게 송부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차관 오셨는데, 이미 그 기록은 송부 받으셨어요. 즉 국방부 안에 있습니다. 계엄 관련 회의록 공개·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합참의장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이번 계엄 계획, 합참 내의 계엄과에서 작성률 했다면 문서가 그 계엄과에 있습니다. 계엄과에서 했다면 계엄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합참의 계엄과에서 작성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받았다면 그 역시 합참 계엄과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문건, 계엄과가 작성했건 다른 불상의 곳에서 작성된 것을 받았건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우선 위원장님, 지금 육군참모총장은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불법 계엄을 준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고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 보기에 창피합니다. 국회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관께 묻겠습니다. 국회에 무장헬기를 동원하고 완전 무장한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면 내란죄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관은 사임을 표명했고 사표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가 아니고 장관 직무대행이겠네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장관 직무대행……

○**추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추미애 위원** 자료 요구할 겁니다.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령관 즉시 보직 해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그러니까 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대책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까 안규백 위원님, 자료 요청이 없으셨습니까?

○**안규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좀 바쁘시지요?

○**조국 위원** 예. 7분 주십니까?

○**위원장 성일종** 5분 드릴 겁니다.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조국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 내용에 동의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입장을 낼 수가……

○**조국 위원** 지금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 의견 묻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대통령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조국 위원** 아니, 본인 의견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국 위원 그러면 그때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와서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로텐더홀까지 진입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행태는 위헌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답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전에 저는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던 계엄 관련 안건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방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또는 국방부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위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다음……

장관, 현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게 되면 설사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설사 계엄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요건과 절차 모두 어긴 불법,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인데 법상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시킨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거기에 대한 적법성은 추후 다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위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참모총장 오셨습니다.

참모총장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조국 위원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 사실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야 대통령께서 담화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됐습니다.

○조국 위원 직접 본인, 연락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어떤……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조국 위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셨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전군지휘관회의 때……

○조국 위원 누가 전화했습니까, 연락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전화로 하지 않고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방부장관께서 지휘관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다’, 그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조국 위원 그러면 그 포고문의 문장을 읽어 보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순간적이었지만 읽어 보고……

○ 조국 위원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으니까 수락하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동의하는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 조국 위원 아니, 한글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데 시간이 별로……

○ 조국 위원 일국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문 내용을 못 읽으시고 그 내용이 독해가 안 됩니까?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수락하셨고, 수락하셨기 때문에 계엄사령관으로서 군 투입을 지시하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전문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 조국 위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장관에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조국 위원 이것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똑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그에 대해서 장관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제가…… 별로 인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왔기 때문에 계엄 상황설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른 지시하신 장소의 공간에 아무 전화기도 없고 한 곳에서……

○ 조국 위원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군부대 투입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조국 위원 그러면 누가 명령을 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헬기가 들어왔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 조국 위원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조국 위원 모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조국 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참모총장은 모른다 하셨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조국 위원 국방부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 조국 위원 장관께서 하셨고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 조국 위원 그러면 다시 총장께 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들어갔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 조국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시간을 묻습니다. 언제?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들어갔는지도 몰랐습니다.

○ 조국 위원 몰랐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는, 육군참모총장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3시 25분에 임명이 되셨어요. 23시 25분에 참모총장이 임명됐는데 1시간 전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임명도 되시기 전인데 1시간 전에 선관위에 군인이, 군대가 투입돼 있었어요.

계엄군 투입 명령권자는 누구입니까? 선관위를 묻습니다. 국회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선관위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조국 위원** 모르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총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안규백 위원** 나는 총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신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눈 장군으로서의,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안규백 위원** 총칼을 겨누고 실행을 했잖아요, 포고문을 발표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포고문은 제가 확인하고 받은 상태에서 서명을 내린 것은 맞습니다.

○**안규백 위원** 똑바로 말씀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정치활동에 그 많은 계엄을..... 위헌, 위법성을 발표했는데 포고령 1호를 보면 1항에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는 행정·사법에 관한 것을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의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고 수십..... 한 십몇 분 지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문안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문안을 보고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부분도 전문성이 없어서 여러분들과 좀 읽어 보면서 ‘이게 맞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안규백 위원** 조금 전에 조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국회에 난입하고 유리창 창문을 깨고 계엄군들이 총을 휴대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계엄사령관으로서 인지를 못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명령을, 그걸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한 거고요. 당연히 부대 이동은……

○**안규백 위원** 계엄군이 휴대하고 왔던 그 총칼에다가 실탄을 휴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걸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게 뭡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당시에는 상황실 구성이 안 돼 있어서 그것에 좀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안규백 위원** 포고문을 발표한 이후에 계엄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면서 사령관, 기조실장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발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발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내려가서 토의하고 그랬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한테 실탄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이, 무장한 것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계엄사령관이 투입한지를 몰랐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안규백 위원**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을 나중에 체크를 하고 언론을 보고 확인해서 이것이 계엄 임무수행 군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를 그때 마침 합참 계엄과장이 내려와서 문의하고 토의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당신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되고 단두대에 처단돼야 할 인물입니다. 확실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주요 직위자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체포조는 누구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역할이 뭡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당신이 포고문을 발표했잖아요. 포고문 발표 중에서 위법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는 인지를…… 이게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아니, 포고문을 본인이 스스로 읽어 내려가면서 한글 해독을 못 했습니까?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집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읽기는 읽었는데 용어가, 저희 군인들이 잘 모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는 과정도 그것 때문에 있었고……

○**안규백 위원** 총장은 이미지 관리, 양두구육의 두 얼굴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유용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군,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첫해인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위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하신 야당 위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용원 위원** 그때 12·12, 5·18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러면 차관께서도 이번 계엄령 발포 관련해서 사전에 잘 모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명예를 짚어지우게 됐습니다.

차관께서는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 최고 책임자이신데,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육군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총장님은 말만,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셨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완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것에 대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런데 제가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의 하나는 특전사의 경우 707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특전사 707……

○**유용원 위원** 예, 707.

707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병력의 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무장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용원 위원**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유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차관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동의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한지 여부는 추후 따져보겠지만 저는 기존에 제가 국회에 와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는 그 행위 자

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박안수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 제가 아까 포고령을 낼 때 과거 사례를 참조했느냐 물은 이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1397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말 그대로 유신 비상계엄 체제에 대한 위헌·무효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알고 계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건 들은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어떻게 포고령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것만으로 이미 위헌·위법이고 내란죄예요.

모르고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제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능력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능력이 안 됐다? 능력이 안 됐는데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무장한 군대를 들여보낸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박범계 위원** 검토를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순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검토를 했으니까 더욱더 범법자예요. 범법자다.

두 번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군사상 필요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설시했느냐? 상대방이, 즉 국회가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설시 내용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위헌·위법이라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포고령에……

두 번째,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데, 군사상 필요라 함은 상대방이, 즉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박안수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6호에,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 박범계 위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참, 당신이라는 표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섯 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마음대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도 과거에 유신 계엄 때 대법원은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조치,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이 포고령 1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 이 포고령은 위헌, 위법, 무효이고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자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다 이 말입니다. 국현을 문란할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현을 문란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범계 위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말이에요. 느껴져?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는 국현을 문란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 박범계 위원 내가 지금 세 가지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국현을 문란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드리고요 한기호 위원님 드리고 그리고 추미애 위원님 드리고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혹시 다른 회의 있으십니까? 최고위원이시니까.

○ 김병주 위원 예, 회의 또 가야 되는데……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먼저 드리고 한기호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가 없이 제가 바쁜 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 박선원 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성일종 같이……

○ 김병주 위원 그러면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위원 차관, 내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계엄 가능성 지적했지요? 알고 있지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선원 위원 그리고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세 사령관이 경호처장 관저에서 계엄 예비 음모, 내란 예비 음모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국방장관은 그것을 선동이라고 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박선원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게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선원 위원** 처음으로, 육군총장 박안수 장군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박안수 장군이라고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엄 포고령 1호 11시에 발령이 됐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11시부로……

○**박선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몇 시에 보신 거예요? 11시에 발령됐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그러면 몇 시에 봤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 비상계엄 10시 30분에 내렸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봤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계엄실무편람 알고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 계엄실무편람 합참에서 편집니다.

33페이지,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되어 있어요. 계엄사령관으로서 제1호 포고령의 제1항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엄실무편람 과장이 작성하는 문건입니다. 4성 장군이 될 때까지 기본원칙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원리는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정확하게 딱 기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선원 위원** 10월 국정감사 때 육군본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세 사령관 회동의 문제점 지적을 했고 군이 계엄에 나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때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지적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선원 위원** 계룡대에서 지난 12월 2일 날 올라왔습니까, 12월 3일 날 올라왔습니까? 월요일 날 왔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화요일 날, 3일 날 올라왔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저녁에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날 오후에 육군사관학교 이취임식 끝나고 왔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박안수 장군, 내란죄, 사형도 가능한 죄예요. 수사 대상,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여 박안수 장군,

내란 또는 내란 임무종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김용현 쳤장과 함께 회동할 때부터 내란 예비 음모가 진행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투입된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시 국회에 난입하는 생중계 되는 걸 안 봤습니까? 707특임대, 제1공수, 수방사 특임대, 봤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국회에서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박선원 위원** 난입한 걸 봤으면서 아무런 지시 안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난입한 사항은 제가……

○**박선원 위원** 계엄사령관의 부하이고 계엄사령관의 부대예요. 아무런 지시 안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선원 위원** 결국 아무런 지시를 안 한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수 명령 누가 했습니까? 계엄사령관이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이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철수 명령은 장관님께서 하셨고……

○**박선원 위원** 장관이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선원 위원** 그러면 박안수 장군은 계엄령에 이용당한 겁니까, 육군총장으로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였습니다.

○**박선원 위원** 정상적으로 무슨 임무를 수행했어요? 부대 파견도 안 했고, 몰랐고 TV로 보면서까지 철수 명령도 안 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휘소가 아직 구성이 안 돼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했을 뿐……

○**박선원 위원** 지휘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보좌관 협조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장관의 군사보좌관 협조 받았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 군사보좌관 협조를 안 받았습니다.

○**박선원 위원** 안 받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선원 위원** 방첩사령관에게 무슨 연락 취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다른 연락……

○**박선원 위원** 순서가 이렇게 돼요. 특전사, 특임대가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면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가 방첩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 수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임무를 방첩사령관은 준비했을 것이고 당연히 계엄사령관은 그 전체 과정의 흐름 속에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의원들을 아직 못 잡아들였구나 그러니까 잡아들일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주요 임무 종사자일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함께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 말씀하세요. 억울하시지요? 대통령께 삼정검 받은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추호도,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답변……

○**박선원 위원** 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군인은 명령이 있으면 임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령에 의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4성 장군, 육군참모총장의 대답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저도 군인 출신으로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현 시간에 군의 대비태세는 문제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재 합참 중심으로 대비태세 점검하고 문제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현 시국에서 야전부대 또 전투부대는 어떠한 경우도 맡은 직분에서 혼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명에 의해서 행동한,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특성상 전쟁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에 가라고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될 부분들은 결심, 수행 과정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군인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중함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법에 근거를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실제 저도 군대생활을 했지만, 육군본부에서도 우리가 국정감사 때 계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참모총장이라면 만에 하나, 억에 한 번이라도 없을 일이라도 계엄법을 들여다보고 실제 과거의 사례를 검토했어야 됩니다. 총장님은 그 당시에 하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나 합참이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런 상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엄법은 스스로 검토가 돼야 된다.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토가 돼야 된다’. 군인들에게 실제로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또한 행동의 제약 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 못 했고 여기 있는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또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오를 냥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군인들도 정치적인 중립은 엄격히 지켜야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데 대해서 절제하고 제한되어야 될 부분들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다른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정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내가 군인으로서 임무 수행하는 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염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차관, 비상계엄에 대해서 언제 알았습니까, 한다는 것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는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국방부장관이 미리 알려 주지 않던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려 준 사실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혀 없고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국방부로 복귀를 해서 국방부 지통실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언제 임무를 알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 지휘통제실, 언론과 바로 이어지는 주요지휘관 회의 때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시에 받았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게 22시 23분경에서부터 한 30분 간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김병주 위원 그날, 12월 3일 날 용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

○김병주 위원 예, 몇 시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갔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몰랐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때도 몰랐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러면 22시 30분경에 계엄사령관 하라고 누구한테 임무를 받았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님이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 김병주 위원 장관이 얘기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은 얘기 안 했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말씀 없었습니다.

○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의 보고계통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장관을 경유해서 받는 계통이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당시에는 전군지휘관 이후에 장관님께서 직접 임무를 주셨습니다.

○ 김병주 위원 장관이 지휘했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김병주 위원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대통령께 보고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관할 이런 거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보고드리지 않고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이 좀 조언이 들어와서 장관님께 ‘장관님, 전국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위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위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위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 김병주 위원 그러면 계엄사령부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하 4층에 있는 작전회의실에 했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리고 그 계엄군에게는 명령을 언제 내렸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군에 명령을 내릴 수준으로 조직이 없어 가지고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 김병주 위원 명령도 내리지 않고 군부대가 계엄군으로 출동합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장관님께 ‘위임 받으셨습니까?’ 여쭤봤고 그래서 빨리 상황실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장관이 임무를 줬겠네요. 구두로 줬습니까, 서면으로 줬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밑에……

○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이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거부했습니까,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을 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왔기도 했고……

○ 김병주 위원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명대군 게이트라든가 윤석열 씨가 선거 개입을 많이 해서 그 근거를 없애려 간 겁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언론사를,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려 간 거 아닙니까, 김 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늘 각인은 되지 않았지만 ‘위법이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주 위원 포고령에 보면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48시간 내 복귀해라, 그러지 않으면 계엄법 처단한다. 포고령 1호는 일반적인데 이 사항은 누가 넣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윤석열 씨가 넣었습니까? 김용현 씨가 넣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김병주 위원 포고령은 누구가 만들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러면 그냥 허수아비였어요? 가니까 이미 포고령이 돼 있었습니까, 만들어서?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임무 수행받고 일부 시간이 지나서 받아서 이제 확인……

○ 김병주 위원 초안을 받은 거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거 주신 거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병주 위원 서명을 하고 내렸나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김병주 위원 누가 서명을 했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서명했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씨가 내린 결로 보이네요? 군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의료현장 48시간 복귀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국회가 무력화되면 2단계로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제하는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계획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없었을 것 같습니다.

○ 김병주 위원 차관, 지금 계엄사령관 비롯해서 윤석열 씨 또 김용현, 관련된 사람은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 기관에서도 체포하고 수사를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임무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 관련된 것에 대한 적법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병주 위원 지금 차관이 장관대리 하고 있나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 김병주 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윤석열 씨나 여기 있는 계엄사령관이나 관련자들은

다 내란죄의 협행범입니다.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10·26 때 군이 김재규를 체포해서 수사했듯이 당장 체포해서 수사하세요. 협행범은 협장에서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제가 계엄사령부가 구성이 되고 진행됐던 일련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아직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게 장관대리자인 차관이 할 얘기예요? 차관도 이때 가서 다 파악은 했을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것 관련된 모든 지시들이 장관님 그다음에 계엄사령부 또 실제로 있는 사령관들한테 전파가 됐고 사실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하시고 추미애 위원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조금 전에 차관께서 대답하시는 걸 봤을 때 계엄 선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그 후에 차관께서는 국방부에 도착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맞습니다.

○**강대식 위원** 국방부 도착 후에 김용현 전 장관 만났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통실에 지휘를 하고 계셨고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장관대리께 왜 비상계엄을 선언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내용 직접 소통한 적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소통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도착했었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극소수만 그러면 알고 대부분 다른, 군 관계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숙지한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파악이 될 거라고……

○**강대식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이렇게 극비리에 추진되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유도 지금 대리께서는 모르겠네요, 대행께서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마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그 계엄 선포에 대한 이유를 담화문에 담았기 때문에 선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계엄 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참모총장께 묻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타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12월 3일 22시경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그날 오후에 현안업무 보고드린 거 한 번 있었고 지휘통제실에서는 그 시간 조금 지나서 만났습니다. 한 20분쯤 된 것 같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계엄 선포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겠네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강대식 위원** 시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23분경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한테 사령관을 지명한 이유는 혹시 참모총장 알고 계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전방 상황이나 군사 관리 상황이 매우 엄중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예상을 합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다고 예상이 돼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강대식 위원** 모든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계엄의 전의부터 병력 동원까지 여기에 지금 계엄사령관께서는 잘 모르고 있다,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거를. 이 지시도 그러면 전부 다 국방부장관한테 받았어요, 전 장관한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자마자 저는 얼른 지휘소를 구성하는 것을 빨리 해야 지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조치하고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참모총장께서는 무늬만 계엄사령관이고 모든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행한 어떤 그결로 이렇게 전부 다 비쳐지는데 그렇게 위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이 저희가 이렇게 훌러가는 과정이나 병력의 움직임 이런 것은 몰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강대식 위원** 포고령 작성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대충 다 우리 국민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배포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포고령을 받고 내용을 받아 보면서 법무 검토를 건의드리고 법무 검토가 완료된 사항을 숙지하고 다시 계엄상황실로 지정된 곳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고 저와 같이 간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4명들이 ‘이거 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죽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그런데 또 그분들도 저만큼이나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지만 계엄 상황은 조금 약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전화 연락이 와서, 포고령 선포하라는 대변인의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막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뛰어 올라갔지요. 뛰어 올라가서 시간이 거기에는 2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시. 그런데 22시 이후에 포고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수정해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3시로 수정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계엄사령관이나 장관대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엄 요건 자체가, 선포 요건이 불충분하고 불충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분 다 동의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확인하는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강대식 위원** 아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불충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보통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짧게만 이야기하세요. 동의하면 동의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대식 위원** 두 분 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상에서 아까 몇 가지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진행됐던 것들은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고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고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제가 전임 장관님하고 소통했을 때는 전임 장관님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명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도 당연히 명령이라는 것은 절차가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면 법상 저희 상임위를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제가 위원님들 중지하고 본회의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간사님들 협의해서 다시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이쪽도 좀 봐 주십시오.

○**황희 위원** 계속 손을 드는데 아예 안 보시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하여튼 다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두 분 다 잘 들으세요.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합니다. 군이 무장 헬기를 동원하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고 하는 것은 내란죄에 규정한 폭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을 수행했다라고만 얘기하면 불법한 명령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위의 불법, 내란죄를 저지르라는 내란수괴의 명령을 하달받아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은 단순한 ‘나는 도구입니다. 그냥 명령서를 하달받았습니다. 명령 수행뿐입니다’ 하는 것으로 전혀 면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급장을 단 군인으로서 지금

계급장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계엄법과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에 응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계엄법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마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아마도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마비됐다, 그 근거를 국회 예산 탓을 대고 민주당 탓을 맙니다. 그래서 국회가 바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목표가 됐습니다.

국회라는 걸 증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 목표…… 그러니까 국회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목표라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추미애 위원** 국회가 목표라는 걸 몰랐습니까, 귀관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화상에 나오는 걸 보면서 국회에 경찰이 많이……

○**추미애 위원** 그러면 모르면서 명령을 하달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명령 하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모르면서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명령문의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날짜 수정 건의드리고 사인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나는 서명하는 도구입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엄은 병력 이동이에요. 병력 이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병력 이동이 이루어지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병력 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귀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것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랐다. 제 머릿속에 아직 각인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태평하게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전사, 수방사가 여기 국회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누구 명령에 따라 들어온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추미애 위원** 지금도 모르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뭐라고 듣고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구두명령을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주변에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이 구두명령을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게 내렸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 부분은 제가 가까이 안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거니까…… 차관은 몰랐다이고요, 논의 기구에서 배제됐다 하고 육군참모총장 본인은 그냥 시간만 수정했다, 몰랐다라고…… 국회 오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수아비 데리고 협안질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후에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지휘권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이 없어서 명령 하달 안 했다라고 하는데 불법 명령에 동원된 군인들이 내란죄에

동원된 역사가 우리가 있어요. 바로 5·18이 그랬지요. 귀관은 역사 공부도 안 하십니까? 현대사도 모르십니까? 귀관의 서명 하나에 국민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많은 생명이 다칠 걸 고려해서 군 병원을 미리 비워 뒀다라는 것도 문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사실 처음 듣는데 좀 답답하기는 한데 그때 명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임무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귀관이 아는 것은 국회가 간첩에게 점거당했습니까? 폭도에게 점거당했습니까? 그렇게 알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국회의원이 폭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상황 판단을 한 거예요? 법령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상황 인식도 중요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신 겁니까? 국회는 예산심의를 12월 10일까지 하기로 국회의장이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이 마비되고 사법이 마비됐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 가지고 체포됐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군을 여기 국회 경내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계엄사령관도 모르는 새에. 그러니까 병력 이동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제됐다는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계엄 요건의 불법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인 불법뿐만 아니라 병력 이동 자체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권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제가 좀 놓쳤습니다.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김민석 위원이 최고위원을 하시니까 김민석 위원님 드리고 또 황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죄송합니다.

차관하고 총장, 단답으로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이 전시입니까? 차관부터.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전시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총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준전시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정전 상태입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 지금 전시냐고요.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엄법에서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장난으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차관, 전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전시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총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준전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준전시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총장? 예, 아니요 간단하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계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예, 아니요 차관…… 빨리 빨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질문하신 게……

○**김민석 위원** 치안 부재 상태냐 아니냐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치안 부재 상태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총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아닙니다.

○**김민석 위원** 아니지요? 차관한테 그리고 두 사람 다, 두 분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김용현 씨가 해외 도피 가능성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현재 모든 상황은 특검과 앞으로 국회에서의 조사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우리는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가 단죄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번 계엄 과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국방부와 예하부대, 어떤 부대에서도 의심 갈 수 있는 자료의 수정·이동·은폐와 관련된 일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본인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김민석 위원** 상식적으로 육사 다니면서 배운 거 말고 이번에 계엄사령관 된 이후에 지금 보면 국회에 간 거, 선관위 간 거 그다음에 언론기관 접수한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 당시에는……

○**김민석 위원** 잠깐만, 됐어요. 아냐 모르느냐만……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은 후에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 또는 특별히 구두로 가이드라인 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포고령 1호 관련된……

○**김민석 위원** 포고령 말고 또…… 통상 우리가 갖고 있는 편람 그다음에 과거 박근혜 때 으레 확인되는, 예를 들어 실행 계획 이런 것 외에 각종 가이드라인 또는 접수 계획 등등 관련해서 어떤 거든, 일체의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하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이 받은…… 계엄 사령관 지위로서의 계엄 행위는 모두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령관의 구상에 의해서 실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본인이 모르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내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계통과 상관없이 예하 부대장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 감찰을 요구하고 해당 수사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정부의 적정한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예, 아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바로 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위원** 필요해요, 안 해요? 아니면 본인이 다 책임질 거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절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것 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계엄사령관으로서의 명령 계통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밑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명령이니까 행해야 됐다라고 답할 수도 없는 매우 중대한 반란행위 내지는 위법행위 내지는 계엄사령관의 계통도 통하지 않은 군 내부의 기강 파괴 행위를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냐 안 하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민석 위원** 왜 동의하지 않지요? 간단하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김민석 위원** 잠깐만, 다음 두 가지 답하세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명령 계통 수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들의 창의적인 명령, 어떤 계엄 수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1번, 2번 중의 어떤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번입니다, 권한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민석 위원** 그러면 나 말고도 어떤 부분으로부터 명령이 내려갔다고 본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권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민석 위원** 어떤 부분이 내려갔다고 본다, 본인들의……

제가 물었잖아요. 1번은 다른 명령 계통이 있을 것이다, 2번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번입니다.

○**김민석 위원** 1번, 다른 계통이 있었을 것이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위원** 누구지요? 법상.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법상으로는 전국 비상계획 안에 있는……

○**김민석 위원** 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님, 이렇게……

○**김민석 위원** 장관 아니면 대통령?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없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김용현 씨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김민석 위원** 그러면 본인은 지금 김용현 씨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장관하고 총장 둘 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감찰하고 수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오후까지 제출하세요. 국방부 내에서 그리고 군 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절한 군법 기관에 수사를 당장, 수사와 체포·압수수색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후까지 제출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원래 어제 계엄이 없었으면 오전 10시에 모 언론사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하시는 우리 군의 병사들 또 부사관, 장교들을 위한 군 복지, 급여체계 이런 쪽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계엄군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참 참담해요. 언론사와 국회는 군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려는 그 시간에 군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입니다. 지금 두 분 보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법과 절차에 또 국익에 맞는 명령만 받는 거지 잘못된 명령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그 명령이 적법한 건지 적법하지 않은 건지, 참모총장이면 우리 군의 최고 수장인데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당연히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황희 위원** 이게 어디가 적법한 게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당시에는……

○**황희 위원** 장태완 장군 아시지요?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군인이지요. 사후라도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용기이고 정의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진정성 있게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야 역사에 다른 소리를 안 들습니다.

이거는 누가 합니까? 지금 보니까 장관은 이미 도망간 것 같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해당 군 지휘관인데 이거에 대한 직무 정지를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차관이나 참모총장이 할 수 있어요? 직위 해제까지는 아니어도 직무 정지는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장관의 권한에서 만일에 그 관련 사항이 직무 정지에 해

당되는 사항이 명확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희 위원** 이거 빨리 해야지, 어떻게 내란에 준하는 계엄에 동원된 지휘관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검토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차관이 느끼시는 최초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장관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비상계엄은 장관이 대통령님께 건의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황희 위원** 건의라는 게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협안이라서 건의하는 게 있고, 그걸 용산에서 이렇게 써 주면 이게 국방부 협안이니까 국방부장관이 건의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황희 위원** 차관은 그것 모르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참모총장님, 이 계엄이 실패한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왜 실패했어요? 그것 하면 그냥 다 장악하고, 언론도 다 장악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도 처단하고 척결하고 다 그거 해야 될 거지, 국정농단 세력 다 척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엄사령관이니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실패했던 이유는 알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급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계획 대비는 안 된 걸로 느껴지는……

○**황희 위원** 군에서 말을 안 들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어수선했던 분위기로 느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황희 위원** 12·12나 군사 쿠데타 하듯이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안 맞았습니까, 뭡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금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황희 위원**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도, 대충 정치인이면 조금 뚁뚱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또 해제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실패한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

○**황희 위원** 제가 이게 왜 엄청난, 부적법하고 법을 어겼는지는 다음 질의 때 설명하고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두 분이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고 사변도 안 일어났고 치안 공백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조건 중에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행정과 사법 영역에 있어서의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입법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권한대행, 알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정확히 법령 문건까지는 숙지를 못했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숙지했습니다.

○**허영 위원** 총장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도……

○**허영 위원** 사후에 알았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좀 전에 장관권한대행이 장관에게 군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반대 의견을 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지휘통제실 들어가고 국회 진입하는……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회의가 개의됐기 때문에 회의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 4분 남았는데 이따가 개의해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장 성일종**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예전에 법사위에서도 병행 진행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발언 드리는 것은 다 보장을 해 드리잖아요. 지금 행정실장한테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안규백 위원** 토론이면 마치고 가지요.

○**허영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맞습니다. 본회의 중에 개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안규백 위원** 그러는데, 그것은 의장이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 임의조항이야.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이따가 제가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허영 위원님 시간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1분여 쓰시고 4분여 남으셨는데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 위원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허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1분 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리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시고 1분 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고령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답변 과정 속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웃으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 오후에라도 현장에서 직접 작전을 지휘한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대령 김현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발언하십시오.

○**허영 위원**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웃픈 일입니다. 하지만 전시도 아니고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변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법·행정 역량에 있어서 마비도 없이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올린 것은 그만큼 비상계엄이 적법하지도 않고 위헌적이며 그다음에 대통령의 망상에 의한 망상 계엄이자 감정에 의한 감정 계엄이자 보복에 의한 보복 계엄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의 답변과 그리고 지금 도망쳐 있는 김용현 장관의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님, 오전에 행안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라서 국회통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전화통화 한 세 번 정도 하였는데 첫 번째 할 때가……

○**허영 위원** 전화로 지시했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전화통화 한 세 번 한 적 있었습니다.

○**허영 위원** 문서로는 안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직접 지시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통화했습니다.

○**허영 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게 한 11시 30분 조금 지난 것 같고, 그때가 포고령 내려간 시점에서 포고령이 내려갔다는 내용과 그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장관님 핸드폰으로 통화……

○**허영 위원** 지시입니까, 요청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저는 요청한 것 같은데 정확한 그 워딩은 잘……

○**허영 위원**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요청입니까, 지시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는 그걸 설명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허영 위원** 또 확인하겠습니다.

판사 보내라고 대법원에 지시한 적 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판사를 보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허영 위원 대법원은 판사를 보내라고 하는 계엄사 측의 과정 요청을 접수하고 법원 행정처는 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령 요청입니까, 유령 지시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허영 위원 직접 안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 허영 위원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지시나 요청이 없는데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

○ 허영 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당일 12월 4일 새벽 양구군청 CCTV실과 상황통제실에 군경이 들이닥쳐서 점거를 했습니다. 전군에 각 지자체 CCTV나 상황통제실을 점거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게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다.

○ 허영 위원 그런데 왜 군이 들이닥쳐서 점거를 하고 지자체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랬습니까? 월권한 겁니까?

육군 21사단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 다음.

차관님, 김용현 장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지금 정확히 위치는 모르고 아침에 공관 관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 허영 위원 출국 계획이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출국……

○ 허영 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 허영 위원 국가수사본부에서 출국금지 지시 요청 내린 거 알고 계시지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 허영 위원 지금 이 내란, 군사 반란 사태에 연루된 계엄사령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령관들 그리고 담당 대령들 지금 직무정지와 그리고 출국금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일단 국가수사본부에서 거기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현재 직무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회에 배치된 부대가 어느 어느 부대입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투입됐던 부대를 말씀하십니까?

○ 허영 위원 예.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확인한 것은 707하고 1여단, 수방사 예하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영 위원 군사경찰 특임대(SDT).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군사경찰 특임대는 아마……

○ 허영 위원 투입 안 됐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알기로는 그 3개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허영 위원 실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투입된 부대의 지휘관한테 확인할 때는 실탄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 허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언론에 나온 사진에 보면 실탄 들고 다니는 박스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군대 갔다온 사람이면 여기에 실탄이 들어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에도 부인합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사진을 보지를 못했고 저는 투입 때 지시하고 했던, 통제했던 지휘관한테 확인을 했고 지휘관은 실탄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 허영 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부승찬 위원님한테 이렇게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득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간 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임종득 위원 오늘 오전에 질의 시에 모 위원께서 대통령님을 호칭하면서 ‘윤석열 씨’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호칭을 했습니다. 일국의 국가 통수권자를 사석도 아닌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질의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엄사령관에 대해서 내란죄를 단정적으로 운운하면서 상당히 비하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위헌·위법 여부가 법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군참모총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주시지요, 시간을.

○**허영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임종득 위원** 그냥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겁니까?

○**임종득 위원** 수십만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군을 비하하는 모습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허영 위원** 여기서 군의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임종득 위원** 발언에 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일종** 5분을 드리세요. 5분을 드리시면서 연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임종득 위원** 아까 끊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군참모총장은 수십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로 바로 이어 가겠습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과정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지난 8월부터 계속된 계엄 준비 발언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해산 의결 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시대 상황의 변화, 통신의 발달 등으로써 보안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장병들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발령이 되고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엄두를 못 낼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계엄사령부와 계엄부대의 대응하는 모습은 준비돼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군 생활을 했던 선배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도 대정부질문 질의 시에 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또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나 차관님이 인식했던 상황과 현실의 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참 참담합니다.

○**임종득 위원** 먼저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와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 시에 발령한다 하는 요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오전의 질문 시에 전시와 사변은 아니다라고 두 분이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이와 유사한 국가 위기 사태와 관련되어서 해석의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저께 오후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당 대표·원내대표 및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국정 마비 상황을 우려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나와서 야당의 이러한 폭주에 맞서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야당의 폭주, 국정 마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가 22명인데 22대에 들어서 10명이 실제로 당했고.

판사의 겁박, 판사를 겁박하는 거나 검사의 탄핵으로 사법 업무가 마비가 됐고,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의 탄핵이 이루어졌고, 행정이 마비가 되는 상황, 국가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국정 마비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대통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 계엄 건의와 해제 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계엄의 시행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전임 국방장관에 관련돼서 복안했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당신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따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우리나라는 5·16, 12·12, 5·18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군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행착오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이유를 제가 개별적으로 다 사안 사안별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군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어떤 이런 것에 동원이 돼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본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득 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계엄과 관련된 반복적인 학습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 차제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부승찬 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가비상사태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총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계엄은 국가비상사태 때 내려지는 거라고 계엄 실무편람에 규정돼 있네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기획관리관님!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예.

○부승찬 위원 지금 계엄 실무편람을 보면 계엄 선포 절차가 있어요. 국방부 비상대책 회의가 있고, 비상대책회의 했나요?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서 뭘 하냐면 계엄 선포 요건, 이게 위법한 건지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이걸 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선포안 작성하셨나요?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선포안이 작성이 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나요, 대통령 보고 전에?

○국방부기획관리관 김경욱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심의……

○위원장 성일종 일어나서 하시지요.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부승찬 위원 계엄 선포 심의를 국무회의에 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으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없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통한 계엄 선포안 작성이 없었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딱 하나 된 게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심의한 것만 있어요. 전제가 무너져요.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비상사태냐? 이게 계엄 실무편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로 하고요.

육군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간 기억하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기억합니다.

○부승찬 위원 몇 시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0시 30분 그때입니다.

○부승찬 위원 10시 30분에 계엄사령관 임명됐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부대 출동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인 것으로 저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으로 봄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승찬 위원 전이지요? 그러면 전에 임명됐으면 부대 출동명령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계엄법상?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법에는 아니고 그냥 현행법, 현행 군 지휘계선상에서는 지휘관들이 출동명령을 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 부승찬 위원 아니, 사령관이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사령관.

○ 부승찬 위원 계엄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부승찬 위원 출동명령하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후에는 계엄사령관이 했는데 저는 출동명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 부승찬 위원 아니, 임명되고 나서 부대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출동명령을 안 내렸어요? 국회 출동 그다음에 선관위 출동.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 부승찬 위원 전혀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은 안 내리신 거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 부승찬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명확합니다.

○ 부승찬 위원 그 정도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탄 지급 여부 아까 나왔었는데 지휘관에게 작전 중에 경계용 실탄을 지급 합니까, 지금도?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휘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5분대기 소대만 가지고 다닙니다. 5분대기 소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기만 가지고 다닙니다.

○ 부승찬 위원 계엄사령부에는 실탄 지급 의무 아닙니까?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냥 빙충 들고 나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부승찬 위원 그다음에 계엄사령관께서 방첩사와 특전사령관과 통화하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사령관 임명 전에는 통화하지 않고 진행 과정에……

○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통화하셔서 병력 준비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준비 사항을 확인한 그런 통화는 없었습니다.

○ 부승찬 위원 없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명확합니다.

○ 부승찬 위원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좀 이따 질의는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당하고 총알받이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관만 임명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누가 하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다음에 부대 출동과 관련돼서 누가 했느냐? 특전사령관이 했어요.

총장으로서 군검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휘권한을 갖고 있지요, 육군검찰에 대한?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있습니다.

○ 부승찬 위원 그러면 이 특전사령관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한 반란.....

○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 부승찬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아예 5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이제 다 돌았거든요.

○ 부승찬 위원 저 먼저 하는 걸로요?

○ 위원장 성일종 예.

○ 부승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 김병주 위원 이것을 뭐 순서를 정해서 하든가 지금.....

○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 김병주 위원 도폐기시장도 아니고.

○ 부승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돌고 그다음 이어서 또.....

○ 위원장 성일종 그건 좀 저한테 맡겨 주세요.

○ 김병주 위원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 김병주 위원 여기가 도폐기시장입니까?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 김병주 위원 그냥 순서를 맞춰서 하면 되지.....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격이 있게 좀 하시지요.

○ 박범계 위원 순서 정하는 건 맞긴 맞는데.....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원래.....

○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먼저 손 드는 사람이 임자처럼, 괜히 미안하고.....

○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님, 오늘은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해 온 거예요.

○ 김병주 위원 현안질의에 왜 순서가 없습니까?

○ 위원장 성일종 그것을 최고위원들부터 먼저 하고 나가시게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것을 자꾸 위원장한테 지금 그렇게 따지자고 하는 거예요?

○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이제 끝났는데요 저는 계속 연이어서 5분을 더 드려서 하시는 게 좋겠다, 추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추가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연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계엄사령관 임명되고 나서 방첩사령관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하셨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임명 후에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그런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경찰 병력이 부족하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경찰 병력……

○**부승찬 위원** 그래서 군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하여튼 어디 상황 조치를 하는 데 경찰 병력이 부족하니까 협조를 사령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에 군이 난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알고 계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패싱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계엄군 헬기가 스물네 차례 왔을 때 방첩사 인원들이 함께 탑승한 것 알고 계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패싱당한 거예요. 지금 방첩사령관을…… 패싱하고 모든 라인 이 새롭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군형법상의 반란이에요, 반란.

그다음에 군형법에 상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령관님은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방첩사·수방사·특전사가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 사령관님을 임명하기 전에 움직였다면 직권남용이지요. 군형법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군형법 제5조를 보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지금 작당한 겁니다. 사령관님을 빼놓고 작당을 했어요. 작당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본청,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총을 겨누고 거기에 보좌직원들, 직원들이 소화기로 막고 이랬어요. 그래서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이 사령관들 말입니다. 그래서 육군검찰에다가…… 사령관님은 하셔야 돼요, 군형법상의 제2조 상관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떠나서 사령관님이 수사 대상이 될지언정 사령관한테 보고 안 하고 행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수사 지시하실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수사 지시하세요.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에 해당 됩니다.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예요, 이것은. 사령관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휘관이, 사령관이 온 포스트(on post) 하라 했는데 이 지역을 이탈해서 이탈의 죄에 해당돼요. 이거 한 두 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게 군이 사는 길입니다, 총장님.

저는 총장님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존경받고 후배들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왜 화살을 혼자 다 맞고 계시냐 이거예요. 질의하는 저조차도 가슴이 미어져요. 개인적으로 박안수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총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국민들한테 사죄할 수 있는 것은 이 명령체계를 이탈한 자들에 대해서 군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어떻게 총부리를 외부의 위협이 아닌 국민을 향합니까? 근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지요.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군은……

○부승찬 위원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제 총장님이 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 딱 하나입니다. 엄정하게 수사 지시를 하시고 나중에 안타깝지만 총장님께서도 수사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손을 둡)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바쁘시지요?

○박범계 위원 잠깐, 그렇게 손 들어서 하지 말고. 말씀, 지적을 했잖아요. 1라운드는 그렇게 하더라도 2라운드는 그러면 1라운드의 순서대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제가 하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박범계 위원 그 순서대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현안질의이기 때문에 순서지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위원님부터 먼저 해 드리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출석 요청한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시간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차관과 또 총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허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중대한…… 지금 다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 병력을 이동한 사람들의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황희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있어요. 벌어진 상황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 안일하고 너무 나이브(naive)하게, 이게 무슨 동네 일 하나 생긴 것처럼 지금 위원회가……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일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입니까?

○위원장 성일종 우선 저희 위원회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수사기관이나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를 묻고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허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상에서 아무런 수사 단위가 움직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거야 앞으로 할 일이지요.

○**허영 위원** 그러니 국회가 먼저 나서서……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위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허영 위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실관계 확인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시라고요. 차관도……

○**허영 위원** 답변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못 하면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영 위원** 그러니 해당 사령관들 다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물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허영 위원님하고 황희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중차대한, 45년 만에 이러한 국가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가가 완전히 혼들렸지요. 국민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두려움 속에서 한반도 전체가 혼란 속에서 있었고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제사회로부터 국격을 손상시키는 엄청난 사항이지요.

내란죄, 실제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획책으로 저는 보는데 이럴 때 핵심적인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게 당연하지요.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만약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위원장님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늘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내일 다시 한번 국방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궁금한 의혹을 우리 국방위가 그래도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위원으로서 할 도리지요.

사실은 비상계엄이 열렸을 때 저도 바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도착해서 체포되지 않을까 하는. 아마 우리 야당 의원들은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문이나 그런 데를 못 하고 일부러 담을 넘어서 오시다가 다친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고 국회가 유린됐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국방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순서나 이런 것을 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몇 분 할 수 있는지요?

○**위원장 성일종** 5분 드릴 겁니다.

○**조국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게 되면 비상계엄 이유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 세 가지 등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이번의 비상계엄이 아닌 예컨대 대기계엄 등을 선포하고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국방부에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가정에 의한 거니까 제가 거기에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국 위원** 총장님, 똑같은 이유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기계엄을 선포하라고 시행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 관련되어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러한 참담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분명한지 여부를 잘 따져서 수명할 것 같습니다.

○**조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어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되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안수 총장님을 포함한 707단장 등 현역 군인들은 군사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군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수사 및 재판을 보게 되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두 혐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각각 무기, 17년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를 책임지고 계신데 군사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군경찰, 군검찰에서 수사를하도록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관련된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 정의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군사반란 내란죄라고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그 우려를 알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가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중앙·동아 사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된 사람 말고 현직 군인 중 예컨대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왔던 707, 1공수 같은 경우 그 각각의 단장들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군사반란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군들이 여전히 707특임단을 이끌고 여전히 1공수특전여단을 이끌고 그 외에도 지금 13 특임여단, 35특임대대, 9사단, 다 동원됐거든요. 이번에 지시 명령을 받고 동원된 계엄군의 지도자급 장군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할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관련된 것들이 공수처, 검찰, 국수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고발돼 있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위원** 제 말씀은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분들에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국 위원 여전히 특임단, 공수특전단 임무를 맡기실 거냐는 거지요,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합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조치하고……

○조국 위원 국방부 차원에서 왜 자체 규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연유로 707 이, 1공수가, 3공수가 동원됐는지 조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완료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또 자체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군사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매우 높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국에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설치됐습니다.

○조국 위원 21사단 위치된 양구에 설치되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설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지역계엄은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조국 위원 된 것 같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조국 위원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조국 위원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은 3일 밤 11시 25분경이었습니다. 맞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25분 30분 그 사이에.

○조국 위원 그런데 양구군청에는, 지금 그 지역계엄사령관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30분 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시 50분에 양구군청이 군사경찰에 의해서 점거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민일보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 언론에는 안 났지만. 사령관께서 임명되기 30분 전에 군사경찰이 양구군청에 진입을 해서 점거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총장께서도 지시한 적 없으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조국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령관도 임명이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령관께서 임명 안 되셨으니까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조국 위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군사경찰에게 양구군청 진입과 점거를 지시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식 조직과 별도로 지금 해외 도피

우려와 의심을 받고 있는 국방부장관이 사선을 동원해서, 21사단이든 또 어디든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사선을 동원해서 점거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엄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이 임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양구군청에 군사경찰이 진입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분명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 조사 이전에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팩트라면 저희가 관련된 것을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하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저 오전에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 그러면 강선영 위원님이 오전에 안 하셨으니까 강선영 위원님…… 왜 오전에……

○**강선영 위원** 아까 그 피케팅하느라고.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오전 것을 지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규백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먼저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고 이 행위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제2조에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의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통령께서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마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죄라는 것이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스스로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을 왜 배제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또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면 그동안에 훈련되어온 군인이 헬기를 동원해서 병력이 투입되면서 그렇게 허술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력 등을 국회에 동원한 행위가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완전히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비상계엄 해제의 절차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조치가, 절차가 따르겠지만 현시점에서 이것을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임무를 수행한 707, 1공수여단, 수방사 일부 병력은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지금 차관님도 모르시고 계엄사령관도 임명된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시기점에서 그런 게 방송에 나가면 단순히 경찰만으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극도의 치안의 불능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전군을 소집할 수도 없고 1공수와 그다음에 수방사와 707은 상시 대기하는 대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병력들을, 그러나 무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추미애 위원님은 공격헬기라고 그랬는데 공격헬기가 아니고 기동헬기입니다. 공중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헬기에 태워서 여기 국회에 들어와서 일부 시설을 캔 것도 확인했는데 그것도 그 군인들이 방방마다 두들기면서 내부에 인원이 없는 방을 찾아서 정책위의장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이 명령에 자신이 수행해야 될 본분을, 계엄사령관님도 정확하게 인식하기 이전에 군이, 대기하는 인원들이 지시를 받고 출동한 행위에 대해서 그 군을 탓하면 군이 전시에 적과 교전할 때도 ‘싸울까요, 말까요? 총을 쓸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의 가치판단을 그 순간에 그런 병력들한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이 비상계엄의 절차를 최초에 선포한 대통령이 옳았다 그르다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회에서 의장이 국회의원 190명에 의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해제했고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수긍했고 병력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러한 문제를, 부하들을 내란죄 또는 이들이 반란, 폭동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시점에서 내란죄니 군사반란죄 이런 것들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규정할 만한 그 어떤 사실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규명……

○조국 위원 무죄란 말입니까? 그 행위가 무죄란 말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니,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빨리 수사단 해서 수사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위원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떠나서 지난번 12월 3일, 4일 행위가 형법상 무죄라고요?

○황희 위원 계엄이에요, 계엄. 다른 것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제가 무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참 점잖으셨는데요.

○조국 위원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허영 위원 아니,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온하게……

○**황희 위원** 무슨 계엄이 나오는데 민주주의를 얘기합니까?

○**위원장 성일종** 위원들의 발언이야 다 들으실 의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위원 발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흥분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안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총장, 오전에는 총장께서 별다른 지시나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박안수한테 전화를 받고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전화한 적이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뭔 내용이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첫 번째, 11시 30분 어간에 포고령 1호를 내린 상태에서 한 7분 정도 지난 순간에 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경찰청에 포고령이 내려갔다고 알려 주고 포고령 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라 이렇게 해서 경찰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경찰 병력의 증가를 요청을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관위를 쪽 집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이유는 뭐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안규백 위원** 선관위 간 것은 상당히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하려고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로 막으려고 했거나 이렇게 아마 추측적으로 가능한데 혹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영뚱한 선관위로 방첩사 사복조를 배치한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본인이 지시를 해 놓고 몰라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지시한 사항에 없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경찰 병력 배치를 요청을 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국회는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총장, 이것 가지고 시간이 없고……

당시 수방사령관이 국회 현장에 와서 상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상주를 시켰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상주를 시킨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중간 지휘소 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통화하는 중에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현장에서 실탄과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휴대하고 상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방첩사 체포조가, 요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방첩사 수사단장, 해사 48기이구먼요. 이분이 욕설을 해 가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안규백 위원 뭘 몰라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안규백 위원 기본적인 것을 알고 오늘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나오셔야지. 방첩사 체포 조를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야, 이 자식……’ 쌍욕을 하면서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 안규백 위원 녹음까지 돼 있다고 그러던데 몰라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규백 위원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국 헌이 문란하고 군 기강이 문란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안보실 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고 또 차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군에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군 기강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규백 위원 차관, 이번 군 장성 인사를 보면 육군에 중장 진급자가 없어요. 육군보다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되는 해공군은 3명씩 있는데 육군이 훨씬 규모가 큰데 왜 이번에 3성 장군 진급자가 없습니까? 저는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3성 진급자가 안 나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군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안규백 위원 소장들을 진급시켜서 중장을 시키면 특전사령관 꽝종근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면 계엄의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일부러 3성 장군을 진급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 안규백 위원 그런 것을 보면 몇몇이 오랫동안 이 계엄을 준비해 왔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 안규백 위원 총장, 당장 말이지요, 사령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시키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규백 위원 아니, 대답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 통에 못 들었어요. 크게 해 보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저를 보세요, 두 분 다. 천천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총장, 사법적 책임이 있어요. 존경하는 부승찬 간사께서 평소에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았다.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받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받았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의 무능, 잘 모르는 것, 무슨 법에, 이렇게 무지한 것,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법적인 책임 문제입니다. 그게 지휘권의 문제예요. 비상계엄이 발포되고 포고령이 딱 나온 이상 그때부터 모든 계엄사무 즉 계엄에 관한 행정과 사법사무는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하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장관, 아주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모두 다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걸 전제로 묻습니다.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통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담 넘어가는데 경찰 6명의 제재를 받았어요, 6명.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아까 세 번 통화했다 그랬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제하라고.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강대식 위원** 고함은 좀 지르지 마세요.

○**박범계 위원** 형님은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성일종** 가만히 계세요.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안규백 위원** 고함이 뭐예요, 고함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박범계 위원** 대답해 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 하달되었다고 연락했던 것은……

○**박범계 위원**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한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확인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인이 한 거라고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얘기하는데 뭘 확인해요, 본인이 한 건데!

○**황희 위원** 경찰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박범계 위원** 그러면 맞겠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정확하게 말씀 다시 올리면 포고령 언론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포고령에 대해서 7분여 후에 경찰청에 알려 주라고 지시를 받고 전화가 없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항의……

○ 박범계 위원 포고령에 따라서 조치해라 했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게 포고령 1호가 국회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지.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양쪽 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모양은 다 수사를 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직권남용죄, 지금 말하는 경찰청장,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사령관들이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외향을 취할 겁니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무를 원래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무슨 특임부대니 707이니 1공수여단이니 전부다 계엄사령관이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군부대 작전권…… 작전권이 아니지요. 계엄사무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분명하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했다 그랬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출발하라고……

○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그것이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조무래기들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간 없이, 간 크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듯이 포고령이 떨어진 계엄사령관을 패싱하고 직접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한다, 국회에까지 난입한다, 무장을 했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닙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맞습니다.

○ 박범계 위원 이게 내란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지금 직권남용으로만 이 조무래기들, 김용현 이 사람들만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엄중한 사태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돼요. 검찰은 수사권 없어. 낄 수도 없는 거예요. 경찰이 해야 되는데 국수본? 턱도 없어요. 국수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합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장관대리께 묻습니다. 지금 나온 것만이라도 즉각 군검찰, 군경찰을 통한 수사권을 지휘해야 될 역사적 임무가 본인에게 지금 부과돼 있습니다. 부여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님……

○ 박범계 위원 알겠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이 직무……

○**박범계 위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하지 말고 검찰, 경찰 다 모양 되니까 지금 수사권 대 가면서 여기다 다 숟가락 하나씩 얹는 거예요. 우리 여당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군의 명예와 군의 사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인, 말 그대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엄중한 임무가 우리 장관대행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임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우리 군은 과거 5·16, 5·18, 12·12 이와 같은 국가적인 격변 시에 군인들이 실제로 여기에 개입돼서 많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는 군인까지도 정치군인이라고 매도당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선후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로 사실은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뜻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저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애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이번 계엄사태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선 국방부나 육군본부는 계엄에 대한, 실제로 교육을 하는지 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지 이걸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군법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계엄은 합참에서 관련된 정규적인 그런 훈련 시스템 속에서 전시, 계엄선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근본적으로 군인이 법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소홀히 하는 우리 사회의 집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양성 과정이든 보수교육 과정이든 법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소홀하지 않느냐 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행동한 군복을 입은 군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육본 내에 계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지요? 그래서 육군총장이 계엄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육군총장은 조언을 받을 참모가 없습니다. 이 점도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또 불법성이 명확히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서 참모총장님은 본인 스스로 불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에게 진단을 받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필요하면 전역지원서를 내야 됩니다. 이건 국군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운명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렇게 명령 발령에 의해서 수명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명령권자가 책임이지 수명자가 책임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각 부대마다 상황일지가 전부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상황일지를 근본적인 자료로 해서 전후 시간 차를 분명히 따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국방부가 하기도 곤란합니다. 또 육군본부나 각 군

본부에서 하기도 곤란합니다, 참모총장이 관련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 제언드리면 합참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합참은 이번에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면 법무팀까지 포함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오늘 이 국방위 전체회의 마치면 우리 차관님께서는 장관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 업무가 정리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의 과정, 명령권자와 수령권자를 구분하고 수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사람한테는 빨리 해제시켜 줘야지만 본분에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님, 한기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말씀하신 대로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가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지금 조언을 해 주신 합참이 적절할 것인지 또 국방부에 있는 조직이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대리, 지금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불안해하는 이유는 비상계엄 때도 불안했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에 참가했던 지휘관이 현 자리에 다그대로 있어요, 장관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안해하고 있지요. 제2의 비상계엄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 전쟁을 유발하는 어떤 국지전을 유도할 거 아닌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께 해 주고 싶은 말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립니다. 다만 제2의 비상계엄이니 국지전을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저희들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실 우려……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3개월 전에 8월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계엄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장관대리 뭐라 했어요? 선동이라고 오히려 야당 위원 질책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랬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개인적으로 사과 안 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주장한 것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황당하지요, 그 주장이.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해서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요. 그래서 진상조사, 일단은 그 관련자들, 내란죄에 관련된 지휘관들을 빨리 보직해임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장관대리가 갖고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당장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하든 하세요, 이것은. 이것은 사실 내란죄의 혐행범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들을 하고 대통령부터 김용현 씨까지 다 잡아들이세요. 체포해서 수사를 하세요. 그래야 국민이 안심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아까 앞에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처럼……

○**김병주 위원** 합참 갖고는 안 되고요. 수사를 해야 된다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불법성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 지금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70년 동안 있었나요? 처음이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군생활하고 지금 경험하고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처음입니다.

○**김병주 위원** 안보 공백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 공백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안보 공백이 생기지요. 사실 지난번에 이종섭 탄핵, 이번에 김용현 탄핵 우리 민주당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계속 주저주저한 이유가 안보 공백이 생길까 봐 주저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보 공백이 장관대리하고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유발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안보 공백을 유래한 유발자가 누구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는 장관께서 일련의 행동의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사의 표명을 하신 것 때문에 면직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고. 또 후임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지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자가 주범이지요, 김용현하고. 당장 그런 조치를 하시고.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은 이때 지역계엄사령부가 언제 다 설치됐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역계엄사 설치된 시간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개소가 설치됐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구계엄사는 2개소이고 지역계엄사령부는 한 열몇 개가 넘는 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 가동이 됐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완전히 가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특전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특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에는 진행 간에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로 어떤 통화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주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경찰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

용 그리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쏴야 된다고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아까 세 번 경찰청장과 통화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통화가 그 당시에 경찰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통화와 함께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다,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수방사령관하고는 몇 번 통화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수방사령관도……

○**김병주 위원** 그리고 이것 끝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방첩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하고 어떤 내용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은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김병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도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수방사령관은 한 7회나 5회 정도 됐고, 맨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경찰이나 병력들이 부족하다는 내용하고 나중에는 어떤 장소에, 국회로부터 이탈해서 배치되어 있다. 최대한 이탈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김병주 위원** 이것의 기획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방첩사령관, 김용현, 대통령이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계엄 준비를 한 이틀 전부터 했던 정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왜 모르세요? 그리고 화상회의를 했다 했잖아요. 몇 시에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화상회의는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전군 지휘관에게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장관님께서 지휘관들에게 계엄 발령된 것 그리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는 말씀과 임명·명령 불응 시 항명죄 그런 어떤 계엄 시작 시점의 화상회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장관이 얘기한 것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관이 예하부대 지시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여기도 자세히는 못 적고 개략 제가 필기를 해 놔 가지고……

○**김병주 위원** 필기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러니까 그 당시 화상회의상에서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명령 불응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 **김병주 위원** 명령 불응 때 항명, 오케이. 또.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리고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 합참차장을 계엄부사령관, 그리고 합참 계엄과가 계엄사령관을 지원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강대식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합시다.

○ **위원장 성일종** 하시겠습니까?

○ **강대식 위원** 예, 짧게 할게요.

○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식 위원** 오늘 모 일간지의 언론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성공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군이 소극적으로 작전에 임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군이 소극적으로 한 것 맞습니다.

○ **강대식 위원** 소극적으로?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제대로 준비가…… 준비라기보다도 하여튼 움직임이 좀 서툰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강대식 위원**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총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지는 않지만 한 280명 정도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 **강대식 위원** 280명이지요. 전체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 299명에서 300명인데 1명당 한 명씩 한 명씩 매치시키더라도 부족한 인원 숫자다.

 그리고 당초 기갑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설도 있었는데 수뇌부에서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다는 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제가 듣긴 들었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 **강대식 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언론에도 나왔고 뭐……

○ **강대식 위원** 언론에서는…… 내가 언론에 나온 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언론에서 안 듣고 사령관으로서 그때 그 당시에 어디에서 기갑부대를 동원해야 된다는 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누구한테서 들었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강대식 위원** 예?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얘기가 전파된 건 없었습니다.

○ **강대식 위원** 없었다고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강대식 위원** 기무사 계엄문건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데 이것 혹시 본 적 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본 적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간지에서는 이런 문건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총장께서는 지금 기무사 계엄문건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 말이네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본 적이 없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강대식 위원**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언론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답답하기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령관이 파악을 좀 해서 오셨어야 오늘 우리 위원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좀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언론에 나는 이런 부분들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지금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 총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강대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참 존경받는 군인이 명령에 의해서 행하다가 이런 자리에 와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어쩌면 수사 대상에 올라서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당의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서 참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황희 위원** 이 내란죄라는 것이요 실패해도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영화에도 그러잖아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성공해도 반역이 됐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황희 위원** 그렇지요? 내란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권리가 위태로울 때 그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고 장기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내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법에 전시·사변, 그에 준할 때 하라는 거지 그 외에 하면 다 내란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왜 그 역사의 반역자가 되시려고 그래요? 뭐든지 이걸 탈탈 털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뻔히 알잖아요, 해외 언론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대한민국이 출지에 이상한 나라 된 것 아니에요? 이것 회복하려면 10년도 더 걸립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 독주하고 반국가세력이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다.’ 아니, 오죽하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192석을 야당에 줬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반국가세력입니다?

아니, 탄핵이고 예산이고 어떤 것 하나 적법하지 않게 추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회

안에서 다 된 건데. 192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잘했어야지 요. 여기서 뭐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잘못된…… 탄핵하고 뭐가 위법을 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겁니까? 뭘 위법했길래 이것이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국가 질서 문란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반국가세력입니까? 국회를 그러면 뭐 하려 놓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거예요.

계엄법 4조에 보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어요, 계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확인한 걸로는 국회에 통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안 했습니다.

또 계엄법 4조에 보면 국회가 폐회됐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저도 담 넘어 들어왔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출입하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군인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제가 계엄법 다 얘기해서 알잖아요. 국회에 군인들 들어오면 안 돼요, 계엄법이 선포돼도. 왜 들어온 겁니까? 들어올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될 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들어온 겁니까, 차관님? 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실제로 병력이 들어가고 한 것은 계엄사, 장관 이런 쪽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계엄법에도 들어오면 안 되는 군인들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왜 들어온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글쎄요,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황희 위원** 사령관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황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제가 정말 모릅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추측을 해 보세요. 왜 들어온 거예요?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본회의 무산시키려고 들어오지 그 외에는 뭐 하러 들어와요, 국회 밖에 있으면 되지. 헬기까지 동원해서 왜 들어옵니까? 이유가 뻔하잖아요.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본회의 무산시키고 이것 자체가 지금 계엄법부터 해 가지고 헌법 다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죄예요. 전시·사변 외에는 계엄령 선포하지 말라는 게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왜 실패했나 물어봤잖아요. 권력자들이 아무리 의도가 잘못된,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부적절한 것을 대한민국 군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닙니다.

계엄사령관, 경찰청장한테 전화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했습니다.

○**황희 위원** 병력을 증가시켜 달라 말고 구체적인 게 뭐였어요? 국회의원들 출입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적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거는……

○**황희 위원** 갑자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포고령 1항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니까요. 국회의원들 출입 못 하게 하면 국헌문란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이거는 진짜 큰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막는 것 그것을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했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황희 위원** 설명이라니요. 총장님 아까부터 계속 명령 명령 명령에 따라서 하잖아요.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이 경찰청장한테 전화했는데 그걸 지시로 받아들이지 설명으로 듣겠습니까? 총장님이 장관이 얘기하면 명령을 수행하듯이 계엄사령관이 계엄이 선포됐는데 전화를 하면 그걸 누가 설명으로 들어요, 지시사항으로 듣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은 계엄법, 헌법 다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국회에 들어온 것은 이유가 너무 뻔해요,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선포 무산 결의를 하는 것을 무산시키기 위한, 본회의 무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작전사령관님!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근혜 탄핵 시에 기무부대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이것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본 적 있습니다.

○**허영 위원** 본 적 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여기에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국회의원 대상 현행 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이 내용이 버젓이 지침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것 봤다 그러면서……

지금 계엄사령관 스스로 280명 투입됐다라고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 280명의 임무가 도대체 뭡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을……

○**허영 위원** 임무가 뭡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임무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중에 한 280명 적힌 걸 봤습니다.

○**허영 위원** 얘기하세요. 그런데 왜 국회에 들어왔어요? 헬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서 왜 들어왔냐고요, 국회에? 그걸 몰라요? 말하면 내란죄로 걸릴까 봐 그러는 거지요? 국회나 정당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려돼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지요?

국회에는 280명 보내 놓고 선관위에는 왜 더 많은 병력과 경찰까지 포함해서 500명을 파견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파견할 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280명 정도 적힌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지휘소는 어디에 차렸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 지하에 차렸습니다.

○**허영 위원** 거기에 대통령이 방문한 적 있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 지휘통제실 오신 적 있습니다. 계엄상황실 오신 적 없습니다.

○**허영 위원** 대통령이 방문한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왜 말씀을 못 합니까? 다 알고 질문하는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상황실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 바로 직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직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 상황 전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 상황 전에는 계엄상황실조차도 없었습니다.

○**허영 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첩사의 체포조 100명을 방첩수사단에 차출해 가지고 280명 외에 국회 내 체포조를 운용했다라고 하는 제보입니다. 이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누가 그 체포조를 국회에 투입시켰습니까? 여인형입니까, 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지시 없이 방첩사령관이 자의적으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또 사이버보안실 예하 정보보호단을 선관위에 파견했습니다.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실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투입한 사실은 모릅니다.

○**허영 위원**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누구로 예측이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허영 위원** 조사하시겠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허영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장관대리님, 저의 질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확인 범위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 허영 위원 계엄사령관, 국회 상황에 대해서 TV를 보면서 인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TV에서 봤습니다.

○ 허영 위원 TV를 보면서 그 TV 과정에 경찰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가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보좌진들과 대치한 상황도 보셨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시점은……

○ 허영 위원 그러면서 본인이 명령하지 않은 군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았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 허영 위원 그래 가지고 진상 파악을 했습니까? ‘누가 지시해서 저기 가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포고령을 받고 그 포고령이 적법한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불법한 포고령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명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군인은 모든 명령에, 그 불법적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명령이 내려왔을 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저는 인식하였고 그 명령에 군인으로서 정확하게 절차를 준수해서 따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력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엄과의 견의를 받아서……

○ 허영 위원 포고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 허영 위원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받았습니다.

○ 허영 위원 장관은 누가 작성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 허영 위원 포고문 원문을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원문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임종득 위원 예.

○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득 위원 참모총장님, 저하고는 육사 기수로 4년 차이가 나서 군 생활 하는 내내 가까이서 지켜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배들로부터는 신뢰를 받고 또 후배 장교들로부터 존경받는 장군이어서 참모총장까지 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면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수락했나 하는 의구심이 좀 생겨요.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직책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고 계엄상황실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계엄사령관으로서 책무의 막중함과 아주 민감함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할 때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때는 절차가 이상 없고 당연히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수명하는 게 기본이기도 하고, 저는 그때 절차적 정당성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단순히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포고령 1호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군 생활을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보면서 해석해 내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조직도 밑에 없었던 상황이고 시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투입 부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장악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작전이 수행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전혀 없었고 저하고 같이 수행 갔던 몇 명하고 합참의 계엄과장과 세 분이 저를 도와줬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장관님께 위임한 상황과 우리가 하는 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부족했고, 그 포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드렸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검토되었다는 말씀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여 동안 돌려보면서 계속 읽어 보고 있는 과정에서 보내야 된다고 대변인실에서 연락 와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수정해서 바로 내린 상황입니다.

○**임종득 위원** 계엄부대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매스컴을 타고 나갔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도 봤는데, 정예부대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수행하는 모습들에서 좀 고개가 갸우뚱할 정도의 모습이었다. 아까 총장님도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매우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평상시에 군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투입 병력과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는 게 좀 헷갈리는데 국회에 몇 명 정도, 280명이 국회에 다 들어온 인원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 그런 숫자를 봤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카운팅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임종득 위원 선관위에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갔고. 통상 계엄 상황이 되면 사실은 언론기관들을 폐쇄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임무인데 이번에는 안 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검토한 것 없고 언론기관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임종득 위원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달라서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임무를 아직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 임종득 위원 그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임무가 뭔지를 알아야만 그 임무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작전의 성공·실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하신 사령관으로서 이걸 모른다는 것은 조치를, 실제로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 많이 해손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의 염중함을 인식하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한 치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 그중에는 군인들에 대한 평소 계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도 도출해 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순 명령을 받고 수행했던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선영 위원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투입돼서 활동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되고 계엄에 대해서 충분한 숙달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지만, 맞을 것 같지만 일개 제 생각에 707 인원들이 그래도 우리의 가장 정예 특수전 요원이고 1공수여단도 마찬가지고 수방사의 인원들도 평상시에 대테러 훈련과 치안을 유지하는 데 군이 필요할 때 동원되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이 안 돼서라고, 준비가 안 돼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칫 우리 군의 수준이 그렇다고 생각할까 봐.

제가 정정드리는 것은 그들은 물론 명령을 받고 국회까지 왔지만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 일부고 그들과 충돌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 발생한 상태에서 치안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걸 잘 유지하고자, 충돌도 방지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치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인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계엄사령관으로서 총장님은 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데 그 말씀, 제가 말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동의하고 아까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정정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하나는 계엄에 대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계엄이 대통령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한 군인 일부가 일으킨 쿠데타가 아니고 대통령이 국가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의 절차 그다음에 그것이 적절 했느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계엄 선포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장님의 소집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 해제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바로 해제하셨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계엄을 했으나 이것은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계엄이 중지된 것이다, 그리고 계엄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와 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한번 확인하고 또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비상계엄이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게 말이 안 맞다는 거지요.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뭡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는 게 뭐고 실패했다는 게 뭘까요?

비상계엄 선포했고 국회에서 요구해서 그것이 해제됐고 해제를 순순히 따르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군인은 원위치로 갔습니다. 그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가 원래대로 그 행위가 취소되었거나 철회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판단은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네 분 계시지요?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시고 허영 위원님 하시고 부승찬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저까지.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도 하시겠습니다?

○**황희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총장, 국방부 계엄상황실에 장관과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는데 왜 총장은 머뭇거리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상황실 자체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도 없고.....

○**안규백 위원** 아니, 국방부 지통실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 지통실.....

○**안규백 위원** 예. 그건 20시에서 21시 사이에 방문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지휘통제실에 오셨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오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저는 계엄상황실이라 하는 줄 알고……

○**안규백 위원** 박안수 총장은 계엄 당시에 23시 30분경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회 전체 출입 통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1항을 설명했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1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통제해라’라고 주문을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본인이 해 놓고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포고문에 의거해서 말을 했잖아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포고문을 내렸고 포고문이 내려갔다는 걸 설명을 하고 1항에 대해서 알려 주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 줬습니다.

○**안규백 위원** 알려 준 것이 아니고 지시한 겁니다.

박안수 총장의 경우를 보면, 이력도 또 경력도 보직이 계엄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왜 임명됐다고 보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과 관련해 군사 상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통상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서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합참의장이 해군이어서 미덥지가 않았던 모양이지요? 좀 소극적이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누구나 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수행합니다.

○**안규백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김명수 합참의장이 굉장히 아주 행운아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만큼 중차대한 전방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계엄이 발동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총장이 지금 사령관이 되면서 지휘계통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지휘계통이라고 보십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임명권자께서 합참의장, 육군총장, 연부사령관 포함해서 다양한 장성급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크게, 크게. 크게 당신은, 총장은 계엄과 관련된 보직에는 한 번도 없었고 계엄과도 합참에 있지 육군본부에, 육군에 있지는 않잖아요, 본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긴 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본인이 나한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래도 군인은 또 명령이 오면 정상적으로 수명하는 준비가 늘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명령일 때 그것이 수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 총장님, 좀 전에도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그리고 부승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총장님이 아침부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될 상황에 계신 것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픕니다.

총장님, 지금 휘하에 계신 육군 병력이 몇 명쯤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병사들만 23만 3000쯤 됩니다.

○**유용원 위원** 간부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30만쯤 됩니다, 36만.

○**유용원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은—주로 간부들이겠지요—간부들이, 물론 여건이 되시는 간부들일 텐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좌진한테 보고 받은 바로는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이런 전화들도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총장님께서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하실 생각 있으면 해 주시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는 솔직히 우리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장병들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용원 위원** 저는 언론인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복 입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총장님께서 어찌 됐든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되셨고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야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지휘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현역 군인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는 군인은 사표를 못 낸다. 왜? 통수권자가 임명해 주신 자리라 함부로 사표를 못 낸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총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셨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장관님께 말씀 올렸고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수준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위원** 그렇다면 저는 감히 총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의를 표명하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유용원 위원** 총장님을 위해서나 많은 현역 군인을 위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한 번 더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유용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이 사진을 제가 올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사진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총장님!

사진 돼요? 안 되면 먼저 이것부터 물을게요.

어제 김용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만 24시간이 되기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오는 이유가 만들어졌지요.

총장은 어제 장관께 사의 표명을 언제쯤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는 오후, 점심 식사 하고 이후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24시간이 지났네요? 반려된 것……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개략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수리가 됐으면 오늘 안 나올 수가 있었는데 반려가 된 거지요. 이게 꼭 ‘반려한다’라는 대통령의 워딩이 있어야지 반려가 아니라 24시간 동안 방치한……

저는 박 총장께서 여야 위원들로부터, 특히 제가 좋아하는 부승찬 간사로부터 ‘군에서 존경받는 총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또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도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대통령이 왜 합참의장을 버리고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을까? 그리고 모든 걸 다 바이패싱(bypassing)했다, 왜 그랬을까? 분노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우리 총장의 지휘자에 대해서 저는 분노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지만 비겁하고 용렬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내란의 한 징표입니다.

사진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저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제가, 담벼락 바깥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찍어 주신 사진입니다. 담벼락 저 안쪽은 총장의 1호 포고령에 의해서 그것을 안내받은, 지시받은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의원들을 통제하라. 저 못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10여 분간 이상 대치를 했습니다. 저 안쪽에는 경찰들이 한 예닐곱 명이 있었습니다. 저게 꽤 높은 곳이었어요. 점점점점 통제가 강화됐어요, 점점점점. 저게 현실입니다. 제가 저때 느꼈던……

시민들은 ‘왜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게 하느냐’, 밀어 넣으려고 그리고 안에 있는 경찰은 못 들어오게, 예닐곱 명이 저를 못 들어오게 밀어냈습니다. 위험하기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욕스러웠어요. 본 위원이 느낀 감정은 모욕스러웠습니다.

내가, 판사 출신인 저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박범계 위원** 판사 출신인 저는, 법정에서 재판장은 마이 코트(my court)라고 얘기합니다. 국회 경내는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다, 국회의원들의 말 그대로 우리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경찰이 주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꼴이에요.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이 마이 클래스(my class), 내 학급에 선생님이 못 들어가는 꼴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반란과 내란의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총장,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느껴집니까? 답하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매우 송구스러운 부분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책임감을 느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계엄이 잘못된 거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상황을 보면 헬기로 이동을 했어요. 헬기로 이동한다는 것은 뭔가를 아주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뭔가를 진행할 때, 그래서 단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신속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헬기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대나? 그리고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했어요. 사실 국회 담벼락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되는 건데 헬기로 신속하게, 무장을 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하려고 하는 테를 난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위에서 정확한, 선명한 명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하니까, 차관도 모른다고 하고, 이것 보는 듣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유가 하나지요. 국회의원을 체포 그다음에 본회의를 무산시켜라,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가 무력화되지 않게 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니고서는 국회에 입법 청원하러 왔겠어요? 예산 더 달라고 왔겠어요, 중무장하고 유리창까지 깨고?

대통령이 지휘통제소 방문했을 때 지시사항이 뭐였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시사항이……

○**황희 위원** 이것 관련돼 있지 않겠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시사항이 뭐였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답변이…… 제가 잘 모릅니다.

○**황희 위원** 답변 못 하겠지요. 이것 지시했겠지요.

경찰청장 답변이에요.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선관위에서 곧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병력을 좀 그쪽에다 배치해 달라’. 경찰청장이 정신없었을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전화하라, 국회에 병력 배치해 달라고 하라 방첩사령관이……

그런데 방첩사령관이 왜 선관위에다 병력을…… 선관위를 왜 가는 겁니까, 선관위? 좀 생뚱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선거사무 관련해서 가지고 직원들 휴대폰을 압수 했다는데 숨기고 이래야 될 일이 있어요? 방첩사령관은 경찰청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선관위로 병력을 배치해 달라, 계엄사령관은 청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국회로…… 둘 다 현법기관이고 이 계엄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관인데 이거야말로 위헌적이고 심지어는 계엄법까지 위반한, 이것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 상황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황희 위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계엄군이 헬기로 이동해서, 중무장하고 유리창 깨고 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국회에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모이

고 있었어요. 왜 들어온 겁니까?

아니, 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계엄에 대해서 몰라도 기본적으로. 특수 전을 한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답하세요, 한 분씩.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뭐……

○황희 위원 이것 모른다고 하면 안 돼.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게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희 위원 상황을 가르쳐 줬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게 된 임무들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못 드리는데 정말 어떤 임무를 받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희 위원 그냥 왔으면 유리창 깨고…… 유리창 깨고 무장한 군인이 들어왔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임무를 받고 그렇게 투입이 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희 위원 제가 1년 내내 물어볼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장관대리님, 방첩사령관 밑에 신원조사담당관—대령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외 2명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17년도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11월 26~28일 사이에 관련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장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장관께 말입니까?

○허영 위원 예. 장관과 그다음에 차관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허영 위원 계엄사령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방첩사령관 여인형한테 보고를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방첩사령관 밑에 신원조사담당관—나 모 대령이라고 합니다—신원이 맞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인형 사령관에게 그런 보고를 11월 26~28일 사이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12월 2일이 최초의 이 계엄에 대해서 군과 대통령실이 움직인 날짜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일찍 계엄을 준비하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로 계엄사령관님, 방송인 김어준 씨 자택 및 서울 충정로 방송 스튜디오에도 계엄군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언론 제보가 있고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 허영 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 허영 위원 자택 체포조는 인원이 불명스럽고 스튜디오 출입문 등의 봉쇄를 위해서 십여 명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 허영 위원 이 사실 또한 어느 부대 몇 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확인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 12월 4일 0시 40분께 비상계엄이 유지된 그날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어떤 어머니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 허영 위원 ‘총 챙겨서 시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아들과 어머니가 주고받았습니다. 이 상황도 전혀 체크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재 제가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 이 상황 또한 체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 장관대리님, 국방부 차원에 있어서의 수사권 조사권 합침이건 여하튼 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을 언제 구성을 해서 집행할 생각이십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일단 복귀해서 관련된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사안이 준비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영 위원 준비 과정과 그리고 설치 과정과 진행 과정들 철저하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승찬 위원 총장님,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

습니다.

○**부승찬 위원** 1시 넘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대통령이 ‘군이 국회 하나 장악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한, 격노한 것 들은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들은 것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없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계엄 선포 절차가 있어요, 계엄 선포 절차. 여기서 지켜진 것은 국무회의 심의 하나를 제외하고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엄법이든 헌법이든 계엄실무편람이든 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위헌적·위법적 행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은 계엄사령관으로서 반란의 주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속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국방부검찰 안 됩니다. 육군검찰, 지휘·관할 하실 수 있는 육군검찰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안 지켜졌는데……

그리고 총장님도 수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란 얘기하셨지요? 저는 내란보다는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반란이라고 생각해요. 반란의 수괴는 사형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을 위시하여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전부 주모자들이에요.

그리고 군형법상 직무를 유기했어요. 왜 직무를 유기했나 말씀드릴게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있었습니까? 구성돼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구성 중에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구성이 안 됐는데 방첩사령부가 임의대로 방첩사 병력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서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고 그다음에 국회 본청에 사복을 입고 진입해서—사진으로 다 확인할 겁니다—국회의원들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반란 주모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게끔 군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법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차관님도 인정하시고 계엄사령관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의결했으니까 계엄을 해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서는 안 될, 헌법적으로나 계엄법적으로나 규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해서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도 내셨다니까 마지막으로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군검찰을 통해서 아까 해당 자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하시고 총장님도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군복을 입고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장님, 혹시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 성일종 예, 차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꼭 전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장관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본인이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장관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비상계엄을 건의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장관께서는 ‘계엄법 2조 2항에 나와 있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는 공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러한 배경에 있어서 비상계엄을 건의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 위원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드리세요.

○부승찬 위원 제 말씀은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게 위법한 건지, 할지 안 할지.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계엄선포안을 작성합니다. 이걸 안 했어요. 그것은 장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회를, 현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법 제도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결여돼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건의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부승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차관님 말씀은 그것을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계엄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장관께서는 그렇게……

○위원장 성일종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답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계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안규백 위원** 차관은 왜 위원들이 질의에 물어보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됩니까?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아까 부승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달라 그래서 드린 겁니다.

추미애 위원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육군참모총장, 잘 들으세요.

아까 오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전국 계엄이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셔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물었다고 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면 귀관은 계엄법 6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계엄법 6조에 ‘계엄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합참 지통실에 갔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누구……

예, 저는 지통실에 갔습니다.

○**추미애 위원** 국감 당시에 합참 지통실에 가 봤더니 지하 4층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3층입니다.

○**추미애 위원** 공작사의 MCRC하고 연계가 돼서 패널상 어디에 출동하는지 비행 행적 이런 것들이 다 보이던데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좀 다른 차원……

○**추미애 위원** 그런데 그걸 못 봤다라는 겁니까, 지금? 모른다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그런 것……

○**추미애 위원** 헬기가 국회로 왔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까? 상황실을 지휘하려고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이었고……

○**추미애 위원** 대통령이 있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속 안 계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 이 내란·반란 수괴범인 거예요.

그런데 계엄법 6조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전국 계엄이 뭔지도 알고 있으면서, 전국 계엄 시에는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야 된다는 절차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계엄법의 가장 중요한 2조, 계엄의 시행 요건이 2조에 들어 있어요, 헌법에 이어서.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까 ‘머리에 각인이 안 돼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며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하게 저해돼서 그걸 복구할 필요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 그 계엄의 엄격한 요건에 맞나, 그런 상황 인식이 있나’ 그랬더니 ‘그게 각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한심한 답변을

하셨던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법 2조는 안 읽어 보고 계엄법 6조는 잘 알고 있습니까?

아까 국회에 온지 모른다고 했는데 일단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국회로 진입하도록 경찰청장한테 장관 전화를 통해서 전화 통화했다고 하셨는데 국회에 와서 뭐 하려고 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추미애 위원** 국회에 와서 뭘 하려고, 목표가 뭡니까? 국회에 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회에 왜 왔는지 목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추미애 위원**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2017년 계엄 문건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통제를 하는 헌법기관이니까 계엄 통제를 못 하게 하도록, 계엄 해제 가결을 시도를 못 하게 하도록 개의를 지연시키거나 체포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같이 합동작전을 펼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밖에 있는 중앙당사로 빼돌린 거예요. 그토록 계엄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낭설을 퍼뜨리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방해를 실행한 추 원내대표 그리고 거기에 협조했던 국힘당 의원들은 지금 이 상황, 국회가 해제했으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국회에 왔던 목적이 바로 헌법기관으로서 계엄 해제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이 학교 갔는데 ‘왜 갔는지 모릅니다. 도시락 먹으러 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심야에 국회 화장실 이용하러 오셨습니까?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이 국회에 왜 오셨나요?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통제하는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와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왔는지 목적 자체를 모른다고 그러면 귀관의 머리는 그 시간에 블랙아웃이 된 겁니까? 비어 버렸습니까? 누가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위원장님,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추미애 위원**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위원장님.

○**위원장 성일종**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감사합니다.

방금 6조와 2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분명한 것을 말씀 올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군인은 계엄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저보다도 모든 군인이 대부분 그러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6조와 관련해서는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한 층 아래에 있는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은 계엄 사무실을 꾸려 오는 준비 과정에 보니까 합참의 계엄과장이 내려와서—전문가입니다. 합참 계엄과장이 조금 전문가입니다—‘사령관님, 지

금 장관님께서 저렇게 지시하시고 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해야 되는데 위임을 받으셨는지가 분명히 확인돼야 됩니다'라고 제게 알려 주어서 그러면 빨리 알아 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서 '장관님,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위임받은 것 맞습니까?'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임받은 것 맞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한 첫 번째가 있고.

나머지 2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게 뭔지도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작전의 목적과 그런 것을 제가 사전에 지휘소가 있으면 참모들과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상도 없이 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김용현 전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계엄선포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임종득 위원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준하는 사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과 전체적인 판단들이 있어야지 내란죄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부승찬 위원님께서 계엄실무편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계엄실무편람은 합참의 계엄과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법령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한다, 선포안을 작성한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두 차 국방부 차원에서 혹은 육군 차원에서 계엄 관련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육군총장이 이야기했듯이 계엄 업무를 우리 군인들이, 장교들이 고급장교가 될 때까지 교육받는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 365일 놓고 봤을 때 그것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없이 죽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임무를 맡게 된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엄 업무는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면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어떤 하나의 과제로라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죽 초급장교 때부터 이게 교육되어지고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시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반복되는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육군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 다 마쳤는데요 김병주 위원님 더 신청을 하셨고 허영 위원님 신청하셨고 부승찬 위원님, 세 분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위원님은 제가 더 드리려고 그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워낙 사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미애 위원 군이 병력을 이동해서 민간을 상대로 총구를 겨눈다 하는 것은 계엄법을 몰라도 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군이 지켜야 될 본분에 비추어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머리에 각인이 안 됐다고 하셨어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 추미애 위원 이제 여태까지 질의를 들으셨으니까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담장을 뛰어넘다가 목이 부러질 뻔한 분도 있고 얼굴이 찢어진 분도 있고 발목 부상을 입으신 분도 있고 개구멍을 찾거나 아니면 좀 낫은 담을 찾아서 국회 바깥을 담장을 몇 바퀴 돌았던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별것 아니었다는 듯이 무사태평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계엄과 반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군이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인식을 못 하고 저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군은 쿠데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차관도 배제되셨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높고 높은 차관님이 이 끔찍한 사태에 대해서 배제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해외 도피를 위해서 항공편 예약했다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모르고 있습니다.

○ 추미애 위원 지금 이 상황을 들으셨으니까, 현행법이 해외 도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획책하면 말이 됩니까?

저 옆에 앉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모두 불법 계엄을 함께 도모한 자들 관련자들을 현행법으로 체포하도록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위원 아까 3분을 안 했거든요.

○ 위원장 성일종 3분 드리세요.

○ 김병주 위원 제가 이것 마지막 질의로 할 테니까 5분으로 해 주세요.

장관 대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이 상황에서 장관 대리는 지휘통제실에서 장관 옆에 있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대통령은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아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이 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와서 한 어느 정도 계셨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시간적으로는 정확히 체크를 못 하고 그 지통실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룸에 가셨기 때문에 시간으로 한 10분, 15분 정도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오셔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는 제가 거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김병주 위원 지통실이 있는데 그 별도 룸에 왔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 계셨고, 그러면 그때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이 따라 들어갔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 그때 대통령이 무슨 말씀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 안 하셨고 상황을 좀 듣고 그렇게 하셨고 장관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나가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기억 안 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냥 상황을 들으셨고.

○김병주 위원 그때 처음에 계엄사령관은 뭘 보고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저는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김병주 위원 김용현 장관은 뭘 보고했나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도 제가 상황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사무실은 지휘통제실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안에서는 다 모니터링이 되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켜져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 한 번 오셨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지통실에 합류한 이후로는 그때 한 번 오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내란죄의 주범, 핵심범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방첩사에서 국회 지역의 도청·감청을 12월 4일 9시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방첩사령관이 국회 지역의 도청, 장관대리 아는 것 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거기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국방부 직할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보니까 탄통에는 실탄들을 넣고 개인이 실탄을 안 갖고 간 건데 장관대리 나중에 확인한 건 뭐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개인한테 실탄을 지급한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실탄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갖고 갔잖아요, 그 전체 탄통에 넣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아마 탄통에 휴대를 하고 개인 지급하는……

○**김병주 위원** 아까 사진도 있었고 통상 보면 작전할 때 분대 단위나 소대 단위로 탄통에 휴대하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지금 2분짜리니까 2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1분 더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님, 그다음에 병력 배치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사후에는 다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대가 어디 갖고 이런 것?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실이 개소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후에는 다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도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동안 뭐 했어요, 이를 동안 있었는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대리.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병주 위원** 그 이후의 병력 배치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현재 제가 확인한 것은 일단 국회 진입했던, 투입됐던 병력은 707, 1여단, 수방사 일부 인원이고 본관에 진입했던 것은 707 병력으로 확인하고요. 나머지는 투입이 됐는데 본관 쪽에는 진입을 안 하고 경내 이쪽에 전개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체포조가 운영이 됐는데 한 10명 정도 체포한다고 했는데 그건 명단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 명단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없습니다.

○ 김병주 위원 왜 없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10명, 그 사실도 모르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사후에는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정말 상황실이 없습니다. 없어서 아무도 그게 관리된 게 없었습니다.

○ 김병주 위원 장관대리, 그다음에 상황이 종료됐을 때 계엄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 김용현 장관이 ‘중과부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그렇게 말씀, 사실 그때 그 마지막 상황 해제되고 했을 때 제가 잠깐 지통실을 비우고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실무자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 김병주 위원 중과부적이어서 아쉽다?

계엄사령관,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중과부적이라는 단어는 기억나고 그 외에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수고했고 그리고 안전하게 복귀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병주 위원 계엄사령관은 예하 3개 사령관한테 끝나고 나서 다 전화 통화했을 텐데 뭐라고 지시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사령관별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말씀.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각 사령관은 통화하지 않았고 세 번째 통화가 경찰청장, 세 번째 통화 그때 하였는데 병력들을 철수하는 걸 장관님이 지시하셨고 했다는 최종을 제가 말씀 올려 드렸고 그다음에 끝날 때쯤 최종은 아니지만 병력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대한 추가 투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교감을 하고 안전한 지역에 있느냐는 걸 확인하는 정도의 전화는 한 적이 있습니다.

○ 김병주 위원 해제된 다음에 계엄사령관은 뭘 주로 했나요? 한 것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해제된 다음에는 그때쯤 3시쯤에 합참 계엄상황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수고하셨다, 지난 두 차례 연습을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3시까지는 상황실이 구성됐구나, 수고했다’ 이런 격려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시간 제가 많이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바쁘시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질문이 지금 현재 시간이 가니까 2차 3차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용원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십시오.

○**유용원 위원**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의 주범이다, 수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아직 수사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재판이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현직 통수권자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저희 여당 위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그때 비상계엄 발령 상황에서 저희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추 대표의 전화를 받고 당사에서 모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처음부터 당사로 모이게 돼 있던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경찰에 의해서 통제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본회의장, 국회의사당 쪽에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저희 여당 의원들이 움직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저는 사실은 저희 여당 의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할 수가 없고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유용원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시에 저희 국방위원 여야 위원들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시찰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를 받은 것은 의원님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한 10시 반 전후해서 아마 거의 다 아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은, 저도 물론 일본에 있었고요. 그 당시 상황을 죽 의원들 단톡방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원래 예결위원장에 저희 당의 의원들 소집 명령이 내렸는데 어떤 분은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어느 분은 이게 차단이 돼서 갈 수가 없으니까 와중에 막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사로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잡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사령관님, 계엄실무편람 취사선택합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마셜 로 레퍼런스 북(martial law reference book)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국가전쟁지도지침도 취사선택하면 되겠네요? 아니, 비상계엄 비상사태하는데 선포 요건도 검토 안 합니까? 이거 왜 만들어요?

(책을 던지며)

이렇게 버려 버리지. 왜 만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실무편람용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어요,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고.

(책상을 내리치며)

어떻게 상대방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취사선택해서……

○**임종득 위원** 똑바로 하세요! 어디를 두드리고 있어!

○**부승찬 위원** 얻다 대고 반말이야?

○**임종득 위원** 행동을 똑바로 하세요!

○**부승찬 위원** 얻다 대고 반말이야!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또 부승찬 위원님,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부승찬 위원 아니, 이거 잘라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아니, 부승찬 위원님 조금……

○임종득 위원 내가 반말 안 했지. 자기가 반말을 하면서……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지금 속기 따져 볼까요?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임종득 위원 봅시다.

○부승찬 위원 봐서.

○임종득 위원 봐요.

○위원장 성일종 아이, 다툴 걸 다둬야지요. 질의하시는 분도 좀 낮추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가능하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 위원 일단 속기 요청드리고요. 속기 요청드려요, 제가 한 것 중에.

○위원장 성일종 이게 금방 안 나와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질의 계속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또 고유시간이니까, 쓰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질의자를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부승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이것은 법적 참고서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법과, 법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법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 책자는 헌법 제77조, 계엄법, 충무 8000, 계엄기본계획, 전시계엄시행계획, 계엄사령부 운영 예규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이걸 만든 이유는요 최소한 준수하라는 의미예요. 취사적으로 골라서 8개 단계 중에 심의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들인 노력, 군인들의 노력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총장님, ‘군바리’라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옛날에 들어 봤습니다.

○부승찬 위원 ‘바리’가 뭐예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비속어에 대해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자기 사람을 낫춰 부르거나 직업을 낫춰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 군바리 소리를 들었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적 과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극소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수십 년에 걸쳐서 군바리 딱지를 떼냈어요. 이제 군이 제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엄이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 반란이지, 저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성일종** 좀 이따 하시지요. 허영 위원님 드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 **허영 위원** 지금 언론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특전사 대원이 언론에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갔더니 국회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는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했다. 오히려 내가 뺨을 몇 번 맞았다. 막아선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특전사가 민간인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도 이게 맞는 건가라며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이 특전사 대원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사령관, 국회에 왜 이 대원들 투입했습니까? 임무가 뭐였습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모르겠습니다.

○ **허영 위원** 장관대리인!

○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그건 신문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규명을 하겠습니다.

○ **허영 위원**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왜 제가 초기에 대통령이 지휘통제소에 전후에 왔느냐 물었는데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까, 뻔히 들통날 일을.

그리고 국민들이 제게 묻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한 자를 처단한다’ 이 처단의 의미가 뭔지 물어 달립니다.

계엄사령관, 처단의 의미가 뭡니까?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면서 이 부분의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끼리 해석적으로 보면서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죄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허영 위원** 처벌하고 단죄하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처단한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은 뭡니까? 죽이고 사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위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또 하셔야 돼요?

○ **추미애 위원** 예, 확인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범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광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전기 충격기지요—공포탄을 쏴야 되겠다고 건의했다고 그랬지요?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을 사령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금지하라, 하지 마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한 3분 논의하면서 그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논의가, 4명이서 논의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4명이서, 4명이라는 게 나머지 두 사람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상황실이 없어 가지고 저희 수행 갔던 인원하고 합참의 계엄과장, 합참차장 이런 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포고령 이후 시점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건 포고령 이후의 시점입니다.

○**박범계 위원** 포고령 이후 시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범계 위원** 그러면 국회 경내에 군이 투입된 이후네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걸로 예측이 됩니다.

○**박범계 위원**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겠다, 공포탄을 쏘겠다, 그 당시에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바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있었어요. 공포탄이 쏴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다, 그림이 그려지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심각하게 고민, 특수전사령관은 이 점에 대한 명확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건의가 되었는데.....

○**박범계 위원** 3분 동안 통화를 했으니까, ‘야, 그거 안 돼, 그건 너무 심해,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10초도 안 걸려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통화를 3분 한 게 아니고 전화를 받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박범계 위원** 안 되겠다 싶어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박범계 위원** 이거 어떡하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리고 다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박범계 위원** 그래서 4명하고 상의를 했구먼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이거 안 된다.

○**박범계 위원** 이거 안 된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박범계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내란을 획책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혈 충돌, 유혈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건 지독하게 나쁘다. 지독하게 나쁘다. 국민을 상대로 살상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했습니다. 사령관도 수용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마무리를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미애 위원님 발언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산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귀관은 계엄령 1호 외에도 연속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미 준비돼 있었지요, 계엄포고령 1호 이외에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준비된 것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없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11시에 통금 조치 하기로 한 것도 준비돼 있었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분명합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분명합니다.

○**추미애 위원**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자료 자체가 없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상황실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추미애 위원**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지통실에서 남긴 말이 뭐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남긴 말씀이 따로 없고 상황을 보고받으셨고……

○**추미애 위원**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관님과 말씀 나누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귀관도 보고를 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보고드릴 것은 없었습니다. 상황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은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현 상황 위주로 그때 진행되는 것 위주로 말씀하신 걸로……

○**추미애 위원** 국회 진입도 장관이 보고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말씀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무장헬기가 들어갔다는 것도 보고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무장헬기와 비무장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적에게 공격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 무장헬기고 나머

지는 수송헬기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날은 장비가 갖춰진 헬기이겠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그것은 수송헬기로 분류가 되는 헬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수송도 하지만 어떤 외장이 공격용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장비 자체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병력 수송용 헬기에는 별도로 무장을 달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미애 위원** 전혀 없었던 겁니까? 무장헬기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확인한 것은 무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 더 드렸었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위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참 귀한 인품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서로들 그동안 회의 중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허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허영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아까 계엄업무편람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부승찬 위원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참의 계엄과는 평시에 계엄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전시에 계엄 업무와 관련돼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부승찬 위원** 동의 못 합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편람에 있는 거고요.

○**부승찬 위원**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임종득 위원** 실무편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부승찬 위원** 전 심의도 위기 시 해요.

○**임종득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부승찬 위원** 저 얘기할 때 끼어들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임종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이따가……

○부승찬 위원 아니, 제가요 단 한 번이라도 임종득 위원님 질의할 때 끼어든 적 있어요?

○임종득 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부승찬 위원 먼저 끼어들었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또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이 있으면 그때 제가 부승찬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게 법령이나 훈령이나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실무자가 전시 업무에, 계엄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한 축자라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이것이 계엄 관련돼 가지고 중대한 법을 혹은 훈령을 어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로 들렸기 때문에 정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들고 이야기하시면서 책을 던지고 큰소리로 책상을 두드리고 그것 하는 모습에 내가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반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것은 이따 보시고요.

○임종득 위원 한번 확인합시다. 한마디 반말 안 했고요 다 존댓말 썼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그건 확인하면 돼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속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청사에 120명, 관악청사에 47명,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130명, 계엄군만 총 300여 명이 투입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출동명령을 내린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제1공수여단장, 제3공수여단장 국회로 불러서…… 지금 차관이나 계엄사령관은 출동명령을 모르고 내리지도 않았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출석시켜서 출동명령을 어느 경위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내렸는지 어디에 출동 명령을 내렸는지 지금 수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관련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사실 확인의 과정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기본적으로요 저는 단 한 번도 끼어든 적이 없었어요, 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임종득 위원 첫날 끼어들었어요.

○부승찬 위원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최소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상대방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 허영 위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상당히 그게 습관화 버릇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제하자 절제하자, 상대방 위원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면 절제하자였어요.

그런데 상대방 위원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상대방 위원이 얘기했는데 받아서 또 위원 질의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상임위가 운영이 돼요? 지금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반말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 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건데요?

○**임종득 위원** 책임질게.

○**부승찬 위원** 뭘 책임지는데?

○**임종득 위원** 한번 보세요.

○**부승찬 위원** 그래요. 속기록 나오면…… 지금 나왔습니까? 속기록 나오면 그건 제가 무릎 끓고 사과할 거고요 무릎 끓고 사과해 주세요.

○**임종득 위원** 반말 있으면 무릎 끓고 사과하실 겁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거예요.

○**임종득 위원** 제가 먼저 했다고요?

○**부승찬 위원** 먼저 하니까 제가 한 거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무릎 끓고 사과하실 거예요, 먼저 반말한 사람이? 자신 없지요?

○**임종득 위원** 왜 자신이 없어요?

○**부승찬 위원** 그러면 오케이.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오늘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성일종** 아이고, 5선의 최고 위원님이시니까 그냥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지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계엄군들이 진술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말이지요.

1분만 좀 합시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성일종** 1분 드리십시오.

위원님 1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계엄군들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이재명을 때려 잡아라라고, 부대장의 지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일단 끌어내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령관님.

그래서 당시의 부대장들하고 관련 특전사 부대장들하고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인원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 여부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양당 간사들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그리고 김선호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성일종** 그건 상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대식 강선영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조국 추미애 한기호 허영 황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희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자원관리실장 성일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홍창식
정책기획관 윤봉희

육군본부

참모총장 박안수